

美國의 휘발유 제품규격 강화와 석유수급전망

美國 행정부는 국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올 해부터 자동차운행이 늘어나는 여름철동안 휘발유의 리드증기압(RVP)을 하향조정할 계획이다.

美國환경보호국(EPA)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내수용 휘발유에 대해 현재 평균 10~11.5에 달하는 RVP를 9~10.5까지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조치시행의 첫해로 사고등의 영향으로 공급상의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감안하여 정제업자, 수입업자, 파이프라인 터미널등은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주유소는 6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증기압은 석유제품이 밀폐용기내에서 증발하여 증기와 액체의 압력이 균형을 이룰때의 압력치를 말하는데 리드증기압(RVP)은 화씨 100도(섭씨 37.8도)에서 측정한다. 증기압은 증발손실, 운반 및 저장탱크의 안전성, 엔진의 증기폐색, 耐寒起動性を 가하는 항목으로서 저장탱크의 설계자료에 중요하다.

그런데 美國행정부가 취한 RVP하향조정은 휘발유수급에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특히 휘발유 성수기인 여름철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이번 여름 석유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로서는

첫째로 RVP를 낮추기 위해서는 부탄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휘발유 收率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로 최근 美國의 휘발유수요구조는 고옥탄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부탄을 제거할 경우 휘발유의 옥탄가가 떨어지게 되어 옥탄가 상승을 위한 대체수단이 필요하다. 또 일부 정유공장의 경우, 현재의 정제시설로 RVP 하향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코스트 상승을 가

져오게 된다.

RVP를 낮출 경우 휘발유 收率이 감소하여 기술적으로 휘발유생산이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번 조치로 인한 휘발유공급 감소분은 약 10만~15만B/D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같이 이번 조치로 인한 공급측면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지만, 계절적으로 여름철이 휘발유 성수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파급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美國의 경우 휘발유 성수기인 여름철과 비수기인 겨울철의 휘발유수요차이는 전체의 15%인 약 1백만B/D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보통 여름철의 휘발유수급은 매우 타이트한데 여기에 10만~15만B/D의 공급감소효과는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휘발유수요구조면에서 보더라도 문제는 우려할 만하다. 현재 美國 휘발유수요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무연휘발유는 지난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7%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런데 현재 美國의 무연휘발유 생산시설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고, 이번의 RVP의 하향조정으로 수급불균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美國이 휘발유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확대해야 되나, 현재 美國에 주로 휘발유를 수출하는 유럽지역에서도 무연휘발유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美國에 대한 수출여력은 적다. 또 내수용으로 수입하는 휘발유도 제품규격상 RVP인하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격조건을 충족하는 휘발유수입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번 美國의 RVP인하조치는 美國의 휘발유수요급증과 성수기가 맞물려 여름철 휘발유시장의 팽박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